

칼럼

오 현 숙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장려담당



순천에서 태어난 아이는 꿈이 다르다

“결혼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지만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일자리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부모가 될 자신이 없다”, “아빠가 육아를 도와주면 좋겠지만 매일 야근이다 보니...”

지금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다. 대한민국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 고령사회 진입 등과 함께 본격적인 인구절벽 시대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결혼건수는 28만 건,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집문제도 큰 걸림돌 중 하나이다.

또 심각한 실업난으로 인해 결혼을 미루고 있다. 실사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적은 임금과 불규칙한 노동시간도 중요 원인의 하나이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수당 도입, 돌봄

인프라 확충, 청년 취직·주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유럽의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 불렸던 독일이 근무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나누기로 출산율이 크게 상승했다.

순천시는 새정부 기조에 맞춰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좋은 일자리와 함께 사는 아이 낳고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에는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했다.

시는 지난 13일 출생한 아이에게 ‘순천아이 꿈통장’을 만들어줬다.

그동안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3차녀 이상에게 지원하고 있던 출산장려금을 올해 지난 1일 이후 출생한 첫째아이부터 매월 5만원씩 5년 동안 적금으로 지원하는 순천아이 꿈통장 지원을 시작했다.

7월에 태어난 첫째아이는 출생신고 후 순천아이꿈통장을 개설했다.

지난 1월부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해 첫째 아이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3월에는 기존 보건소 내 장난감 대여소를 출산·육아용품 대여소로 확대해 유모차, 카시트, 흔들침대 등 고비용의 출산·육아용품을 연회비 1만원으로 대여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및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제 지원, 베이비 마사지, 요가교실 및 임산부 요가 프로그램을 기수별로 모집해 8주 단위로 진행 중이며 3차녀 이상 출산가정에는 산후 조리를 위한 40만원 상당의 한방약침도 지원해 준다.

시는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보육교직원 인성강화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CCTV를 설치했다.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지원과 부모 모넨터링단도 운영 중이다.

또, 엄마가 아이 키우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중이며 9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도 집중하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도서관인 기적의 도서관을 개관하고 제1호 그림책 도서관 등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적의 놀이터가 없는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었다.

기적의 놀이터는 아이들, 학부모, 전문가가 만든 놀이터이다.

놀이터 이름도 아이들이 짓는다. 제1호 기적의 놀이터 ‘영동발동’, 제2호 기적의 놀이터 ‘작전을 시작하자~’ 등 이름부터가 다른 놀이터와는 다르다.

어린이들은 기적의 놀이터에서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르고 ‘놀이’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런 기적의 놀이터는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퍼져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시는 아동친화도시를 추진 중이다.

인구 고령화 및 출산율 감소에 따른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인증하고 있는 국제 표준모델을 통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엄마를 배려하면 아이들은 행복해진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도시가 바뀐다.

아이 낳고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순천시는 저출산, 인구 절벽 시대의 파고를 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社 說

여름철 식품안전 유의해야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식품 관련 위해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다.

모두 식료품 및 기호품에 관련된 것들로, 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기타 식품·기호품, 육류·육류가공식품, 건강식품, 빵·과자류, 곡류·곡류가공식품, 음료, 과일·가공식품 등이 차지하고 있다.

보통 위해 관련 식품을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 관련 질환이나 호흡계 이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최근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 핫 이슈로 부상하면서 식품 위해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여름철과 맞물려 식중독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다,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부정·위해 식품 제조와 미진한 관리, 유통행위까지 맞물려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식품 관련

위해 정보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만1462건이 접수됐다. 연평균 1만1157건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는 1~6월에 651건이 접수됐다.

식중독 역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집계를 보면 2002~2016년 식중독 환자 10만6941명 중 5만2944명(49.5%)이 6~9월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중독 등 식품 위해 정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신선 재료 보관 및 취급이 쉽지 않은 여름철이란 특성과 함께 원산지 관리 미비, 냉장유통 관리 취약, 다양한 식품의 수입, 식품제조업체의 영세성, 식품 위해 사범에 대한 미약한 처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제조·유통·판매 등 전 단계에 걸쳐 감시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해 식품류에 대한 단속·점검도 더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鼓 북 고 鼓瑟吹笙
 瑟 큰가문고 슬
 吹 불 취
 笙 생활 생

▷ 뜻: 비파를 치고 저를 부니 잔치하는 풍류임.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화재사고 없는 안전한 여름휴가를

초여름이란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벌써부터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쯤 되면 일상에서 벗어나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휴가계획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안전이 뒷받침돼야 한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휴가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안전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휴양시설의 화재안전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주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여가

생활이 활성화되면서 사회여건 변화에 맞춰 민박·펜션 등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대책은 아직 미흡하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펜션’은 대개 농어촌 민박으로 상호만 00펜션으로 한 것이 많고, 이러한 업소 대부분은 소규모 시설로 소방시설이 미약하다.

왜냐하면 농어촌 민박시설로 등록된 경우 소방시설이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정도만 설치해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민박업소는 주변경관이 좋은 곳에 입지를 선정해 건축함으로써 소방차량 진

입 및 소방용수 공급이 어렵고 건축자재도 목재나 가연성 조립식 자재(샌드위치패널)를 사용해 화재 발생시 초기에 진압하지 못한다면 대형화재로 커지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숙박휴양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을까?

우선 숙박업소 관계자들이 화재 발생 및 대응요령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법령개정 이전의 등록업소들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여행객 안전을 책임지는 한사람으로서 자율안전 관리체제를 확립해 시민들을 화재의 위협으로부터 차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소방기관에서도 소방검사를 통해 불안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인(시설운영자)의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화재예방 및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휴가를 즐기는 시민들이다. 아무리 좋은 화재예방대책을 세우고 소방시설을 설치한들 시민들의 화재안전의식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화재사고의 50%는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한다는 걸 명심하자.

시민 스스로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화재안전수칙을 실천한다면 여름휴가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화재사고 없는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김성모 / 담양소방서 장성119안전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년연속 우수축제

제10회 정남진 장흥물축제

2017. 7. 29-8. 4 (7일간)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청자합인판매] 2017. 7. 28. ~ 8. 6. (10일간)

7. 30.(토) ~ 8. 3.(목)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강진청자축제장 연계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2017년도말서거미지 강진방문의해 VISIT GANGJIN 2017 KOREA

Imagine your Korea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축제

The 45th Gangjin Celadon Festival 제45회 강진 청자축제

휴, 불 그리고 사람